(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186-224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186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구약촬요』의 번역 및 신학적 특징과 국어학적 고찰

김창주*

1. 들어가며

『구약촬요』(1899)는 한국기독교의 최초 창세기 번역임에도 오랫동안 그 역사적 진실과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 소외된 채로 있었다.[1] 민영진이 1990년 성공회신학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된 『구약촬요』에 대하여 「성서한국」과 「기독교사상」에 두 차례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2] 한편 2024년 대한성공회 소속 사제 남우희는 "대한성공회 초기문헌2"라는 기획으로 『구약촬요』를 출간했다. 왼쪽에 『구약촬요』의 한문과 한글 번역을 가로쓰기로 싣고, 다른 쪽에 『구약촬요』 한글을 현대문체로 풀어 가톨릭 『성경』(2003)의 해당 본문을 위아래에 배치하였으며 뒤에 해설을 달았다.[3] 일각에서 『구약촬요』와 먼저 발행된 『조만민광』을 쌍둥이로 간주한다. 실제 두 책의 편집과 체계가 거의 똑같다. 이 점에서 이덕주의 『조만민광』 연구는 『구약촬요』 분석과 연구에 중요한 근거자료다.[4]

* Chicago Theological Seminary에서 히브리 성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qimchangjoo@hs.ac.kr.

1) 정중호, 『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22), 441. 참고로 한자 문화권에서 '창세기'(創世記)라는 명칭은 8세기 경교의 '혼원경'(渾元經), 18세기 예수회의 '조성경지총론'(造成經之總論), 19세기 '신조만물서'(神造萬物書), '창세역대전'(創世歷代傳) 등으로 불리다가 현재로 자리 잡았다.

2) 민영진, "성공회신학대학에서 발견된 <구약촬요>", 「성서한국」 36:2 (1990), 15-19; 민영진, "최근에 발견된 희귀본 성경 <구약촬요>", 「기독교사상」 385 (1991), 157-166.

3) 남우희, 『<구약촬요舊約撮要>: 우리나라 최초의 창세기 번역』 (서울: 성공회출판사, 2024).

4) 이덕주, "성공회 발췌성서 <조만민광> 연구 - 제3의 성서로서의 기능과 의미", 『그리스도와

이 글은『구약촬요』출현의 역사적 맥락과 번역의 특징을 분석하여 본래 기획 의도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동시에 국어학적 사료로서 가치를 제시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이를테면 최초의 창세기 번역이 왜 실제로는 발췌문의 성격을 띠는지, 고요한(高要翰) 주교가 한국 선교를 위해 어떤 목표로 이 책을 발행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19세기 한반도는 열강이 치열하게 대결하는 각축장이었다.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조선은 한편으로 격랑에 휩싸인 혼란과 공포의 현장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조선 선교의 꿈이 넘실대는 희망의 동산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격전지에서『구약촬요』는 한국교회가 피워낸 창세기의 첫 열매가 되었다.[5)]

2. 대영국종고성교회와 한글 성서

2.1. 꿈틀거리는 19세기 한반도와 한글

노쇠한 조선은 19세기 말 안팎에서 조여 오는 거센 저항에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었다.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거문도 점령(1885), 을미사변(1895)과 아관파천(1896) 등은 외부에 의해,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동학혁명과 갑오개혁(1894), 독립협회 결성(1896) 등은 내부에 의한 큼직한 사건들로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다. 이렇듯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조미통상수호조약(1882)으로 입국한 선교사들의 활동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즉 기독교의 전파 과정에서 한글의 재발견이라는 뜻밖의 호재를 만나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마침내 고종은 1894년 "모든 공문서를 국문으로 작성하라"라는 칙령을 내린다. 조선 사회에 줄곧 음성적으로 쓰이던 한글이 개방 정책과 맞물리며 양지로 나오게 된 것은 한글로 작성된 기독교 문서의 증가 및 확산이 크게 일조한 덕이었다. 즉 고종의 한글 사용 칙령은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 인식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공문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않았다. 식자층에서는 여전히 한문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1892년 장로교는 모든 문서를 한자에서 벗어나 순한글로 작성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은둔의 왕국에 복음을 전하려

겨레문화』2 (서울: 기독교문사, 1987), 273-301.

5)『구약촬요』를 한국교회의 처음 창세기 번역이라고 주장하면 곧장 이견이 제시될 수 있다. 왜냐하면 1898년「죠션크리스도인회보」에 창세기 일부 번역되었고, 이미 가톨릭『고경』과『성교감략』에 발췌 및 요약 형식으로 일부 소개되었기 때문이다.『구약촬요』가 창세기 완역이 아니지만 1899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창세기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

는 선교사들은 예외 없이 한글을 발견하고 한글성서 번역과 보급에 힘을 기울인다. 무엇보다 '쉬운 글'로 접근한다는 선교의 원칙에서 출발한다.[6] 선교사들은 한글이 배우기 쉬운 글이라는 점과 이미 조선 사회에 통용되었던 한글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7] 로스 팀이 만주에서 『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1882)를 필두로 『예슈셩교젼셔』(1887), 성경번역자회의 『신약젼서』(1900), 『구약젼셔』(1911) 등 연이은 한글 성서가 발간되며 영역을 넓혀갔다. 이따금 한자를 섞어 『'선한문'(鮮漢文) 신약전서』(1906), 『선한문 관주 성경전서』(1926) 등은 한문과 한글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한자 선호 대상의 독자를 겨냥하였다.[8]

대한성공회는 처음부터 성서 번역에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곧 한문-한글 대역본(對譯本)이다. 1899년 발간된 『구약촬요』는 1894년의 『조만민광』처럼 한문 본문을 먼저 새기고 한글 번역을 뒤에 붙였다. 한글 성서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자칫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한문을 중시하는 식자들을 선교 목표로 삼은 전략이었다.

2.2. 종고성교회와 『구약촬요』

한국 선교 초기 성공회의 명칭은 '영국성교회,' '대영국종고성교회,' '종고성교회'(宗古聖教會) 등으로 불렸다. 1908년 7월 「종고성교회월보」가 창간되어 1910년 8월 「대한성공회월보」로 바뀌면서 줄곧 '대한성공회'가 자리를 지켜왔다. 옛 이름 '종고성'은 낯설다. 내막을 살펴보면 초창기 선교팀의 정체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파악된다. 또한 『조만민광』과 『구약촬요』의 출현 및 구성, 번역 맥락을 이해하는 데도 맞물린 명칭이다. '종고(宗古)'에서 한자 종(宗)은 근원, 으뜸, 정통을, 고(古)는 문자적으로 '오래 계승된'을 의미하니 '종고성교회'는 '정통을 계승하는 오래되고 거룩한 교회'란 뜻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톨릭교회가 '구약'을 '고경'(古經) 또는 '고성경'(古聖經)으로 칭한 바 있다. 초기 영국성공회가 '宗古성교회'로 표방함으로써 여러 유파 중 하나가 아니라 사도의 정통을 계승하는 교회, 초대 기독교로부터 전승되는 공교회, 그 전통과 신앙을 유지 및 표방한다는 자부심을 드

6) 김동진,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서울: 참좋은친구, 2019), 84. 동학 농민군의 '폐정개혁안 12조'에 포함되지 않으나 통문의 '쉬운 글,' '편한 글,' '백성이 아는 글,' '속인의 글' 등은 한글을 가리킨다.

7) 1998년 발굴된 이응태(李應台, 1556-1586) 부인의 한글 편지, 2011년 유성의 15세기 무관 나신걸(羅臣傑, 1461-1524)의 한글 편지는 조선 시대 부녀자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 한글이 상당히 보급되었다는 증거다.

8) 고종의 한글 칙령 선포 후 25년이 지난 "기미독립선언문"은 국한문을 혼용했다.

러낸 것이다. 이렇게 영국성공회는 16세기 중세 교회개혁 전통을 견지해 오다가 1830년대 한 차례 계기를 맞는다. 이른바 '옥스퍼드 운동'이다. 옥스퍼드 대학 중심의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 공교회"를 주창하며 '전례적 교회(High Church)'의 회복을 확인하였다.[9] 그 결과 영국성공회는 예전 중심의 교회를 강조하였고 그 후예들이 조선 선교의 기치를 들고 한반도에 들어온 것이다.

영국성공회는 1880년부터 조선의 실체를 파악하고 점차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영국은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를 러시아 견제 및 중국, 일본, 러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요충지로 보고 1885년 거문도를 '임시 점령(?)'했다. 그러나 2년 후 전략적으로 퇴각했지만 조선 선교 가능성을 수용하는 선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때 영국 해군 군종 예편을 앞두고 조선 선교의 꿈에 부푼 한 사람이 있었다. 코르프 신부(C. J. Corfe, 1843-1921), 한국명 고요한. 1889년 11월 1일 캔터베리 대주교로부터 조선 교구 초대 주교로 서임되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옥스퍼드 운동의 영향을 받은 그는 '전례적 교회'의 위상과 사도적 교회 전통을 조선에 세우기 위해 1890년 "Michaelmas Day," 곧 성 미가엘 축일 9월 29일 조선에 입국하였다.[10] 대한성공회의 출발점이다. 놀랍게도 고요한 주교는 출항하기 전 선교를 위한 두 가지를 준비하였다. 하나는 1890년 7월 영국에서 한국 최초의 영문 선교지 <朝鮮, *The Morning Calm*>을 발간하기 시작했고, 다른 하나는 인쇄기를 구입하여 먼저 배편으로 보낸 것이었다.[11] 주교 서품을 받은 후 선교 단체 SPG의 후원으로 모교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회를 열고 그의 선교 포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내가 하려는 첫 사업의 하나는 조선어 기도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권위 있는 문서를 출판하고 조선 지식인들과 영국 신학자들에 의해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12]

---

9) C. B. Faught, *The Oxford Movement: A Thematic Study of the Tractarians and Their Times*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3).

10) 이재정, 『한국성공회사개관』 (서울: 대한성공회출판부, 1980), 5-6.

11) 런던에서 발행한 <朝鮮, *The Morning Calm*>은 영국성공회가 한국 선교를 위해 창간한 선교지다. 고요한 주교의 선교 소식, 조선 역사 및 문화 소개, 더 나아가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성공회 선교 현황을 소개하는 저널로서 1890년 7월 월간으로 나중에 계간지로 1939년 7월(240호)까지 발행하였다.

12) C. J. Corfe, "Bishop Correspondent Letters" I (1889), 2. SPG (The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in Foreign Parts)는 1701년 설립된 영국성공회 해외 선교 단체로 고요한 주교와 조선 선교를 후원하였다. 이경호 주교(1959 ~)의 증언에 따르면 고요한 주교의 재정 상태가 여의찮

고요한 주교의 입국 다음 해 1891년 4월 13일 해군 채플린들이 기증한 인쇄기가 도착하자 뛸 듯이 기뻐했다. 그 벅찬 감격을 소상히 적어 기증자들에게 <朝鮮, *The Morning Calm*>을 발송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 강연회에서 밝힌 대로 처음부터 문서(Tractates) 선교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조선 선교의 첫 번째 공식 인쇄물이 『조만민광』(1894)이었고 창세기를 간추린 『구약촬요』(1899)가 두 번째다. 두 책은 내용상 신약의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핵심과 창세기의 요약에 해당한다.

『구약촬요』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인식해야 할 점이 있다. 어느 지역이든 초기 선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성서의 현지어 번역이다. 그렇다고 전체 성서를 번역할 역량은 부족하니 기독교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발췌 번역이나 낱권 번역을 시도하게 된다. 조선에서도 가톨릭과 성공회는 발췌를, 개신교 쪽에서는 낱권 번역에 중점을 두었다. 고요한 주교는 성서의 완역보다 문서 선교에 역점을 두고 '전례적 교회'의 실현을 목표하였다. 그의 문서 선교에 대한 분명한 목표 의식은 『구약촬요』와 『조만민광』의 조선어 번역 과정에서 저본(Vorlage)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게 된 요인이었다. 오로지 '전례적 교회'를 위한 기독교 문서 준비에 한 걸음씩 다가간 것이다.

중국의 성공회는 말씀 중심의 로우 처치 계열과 전례 중심의 하이 처치 계열이 공존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옥스퍼드 운동의 영향을 받은 고요한 주교는 '전례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작업으로 '조선어 기도서' 발행을 중요하게 여겼다. 곧 성무일과(daily office) 및 전례적 교회를 위한 독서 본문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조만민광』 출간 후에 비로소 1896년 12월 25일 조선인을 위한 미사를 드렸다. 조선어 미사 자료 없이 전례적 교회, 곧 '종고성교회'의 전례와 사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13] 『구약촬요』를 비롯한 각종 미사 자료를 차례로 출판한 점에서 전례 중심의 교회에 대한 고요한 주교의 입장은 확고하고 일관되었다. 곧 그의 선교 출발에 앞서 문서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옥스퍼드 강연을 참고하라). 고요한 주교는 『조만민광』의 출간 이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성 마가복음 분량의) 책이 처음 발간되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약 5년 동안 공부한 끝에, 셰레셰프스키 주교, 버든 주교, 위원회본 등 다양한 중국어 버전을 참조하고 한국 학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만민광(Lumen ad Gentium Revelationem)』은

아 독신 선교사를 우대하였으며 미국과 캐나다 교회의 협력을 구할 정도였다.

13) C. J. Corfe, The Bishop's Letter, *The Morning Calm* 72 (1897), 36.

> 문자대로(Ipsissima verba) 성서와 기독교의 근본 역사를 사실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 문서(Tractate)의 번역에 성직자들이 독자적으로 참여했으며 선교회의 가장 뛰어난 학자이며 주교가 지명한 Mark Napier Trolloppe 신부가 개정 편집자로서 한문과 한글을 최종 확인하고 주교의 권위로 출판되었습니다.[14]

그가『조만민광』의 성격을 Tractate로 묘사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성서 번역에 역점을 두었다면 기독교 일반 문서를 가리키는 Tractate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중세에 이 개념은 문자적으로 '소책자'로 옮길 수 있으며 주로 학문적, 법적, 철학적, 신학적 맥락에서 다룬 특정 주제에 관한 탐구를 가리켰으나 근대에는 기독교 일반문서를 지칭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쓰였다. 가까운 예로 '대한기독교서회'의 영문명이 현재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지만 창립 당시(1890)에는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로 표기된 점을 상기해 보라.[15] 더구나 고요한 주교가『조만민광』을 한 번은 Tractate, 다른 한 번은 lesson-book으로 표기한 것은 성서라는 권위보다 전례적 교회를 위한 독서 본문으로 간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는 존 버든의 <구약과략>에 의존하며 조선어 성서 번역, 정확히는 '성서 일과' 확보에 힘쓴 것이다. <구약과략>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구약촬요』의 출판 의도나 고요한 주교의 선교 전략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두 책의 성격이 상당히 흡사하다. 우선 성서에 대한 절대적 신앙보다 '전례적 교회'를 위한 예배 자료라는 점이다.[16]

---

14) C. J. Corfe, *Anglican Church in Corea: Being Documents, Original and Translated, Issued by Authority during the Episcopate of the First Bishop of the Church of England in Corea between 1889 and 1905* (Seoul: The Seoul Press, Hodge & Co. 1905), 22.

15) 트롤로프 주교(M. N. Trollope)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책 Life of our Blessed Lord를 tract로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전도 문서를 뜻한다. M. N. Trollope. *The Church in Corea* (London: Mowbray & Co., 1915), 44.

16) 남우희,『<구약촬요舊約撮要>: 우리나라 최초의 창세기 번역』, 268-270.

3.『구약촬요』의 체제와 편집적 특징

3.1. 서지 사항과 편집 체제



<그림 1>,『구약촬요』의 표지

『구약촬요』는 1899년 대영국종고성교회가 상하 2권 1책으로 발행하였다. 국내의 세 기관이 소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미지 파일, 성공회대학교도서관이다. 본문은 일련번호 없이 단원별로 상권은 창세기 1-35장까지 24단락으로, 하권은 37-50장까지 11

단락으로 압축 또는 발췌 번역으로 창세기 50장 1533절 중 852절 분량이며 창세기의 요약본에 해당한다. 먼저 한문과 한글로 제목을 싣고 나중에 한문 본문과 한글 번역을 차례로 띄어쓰기 없이 '세로쓰기'로 편집하였다.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겉표지에 舊約撮要가 붓으로 쓰였고, 다음 장 첫 줄에 天主降生一千八百九十九年, 두 번째 줄에 큰 글씨로 舊約撮要, 세 번째 줄에 大韓光武三年己亥 大英國宗古聖教會新刊이 인쇄되었으며 한글 표제는 없다.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의 황제로 등극하며 '광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쓰기 시작한다. '광무 삼년'이니 서력으로 1899년에 해당한다. 본문은 110장 220면, 11행 21글자로 구성되었고 책의 크기는 세로 25.3㎝ 가로 16.2㎝이다.

3.2. 번역 원칙과 '대역본' 편집

한국교회 초기(1882-1911) 번역은 중역(重譯)의 시대였다.[17] 성서 번역을 히브리어 원문이 아니라 영어나 한문본을 한국어로 옮기는 경우다. 성공회는 조선 선교가 다른 교파에 비해 늦은 상태였으나 번역 원칙과 목표는 분명하였다.

> ① 번역자는 조선어 교사의 도움을 받아 구술한다.
> ② 언문 초역은 번역자가 직접 작성하고 교사가 정서한다.
> ③ (기존 번역된) 신약성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④ 번역자가 모르는 낱말은 선택하기 전에 영어나 그리스어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 ⑤ 번역자와 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교사의 의견을 채용하고 번역자의 견해를 첨부한다.[18]

위 원칙은『조만민광』의 번역 과정에 적용된 지침이지만『구약촬요』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리스어 대신 히브리어를 확인하였을 것이다. 한편 당시 대부분 성서 번역이 '쉬운 글'을 선택한 것과 달리 한문 본문과 한글 번역을 나란히 배치한 '대역본' 편집이 흥미롭다. 고요한 주교는 1893년 8월 '주교 서신'에서 조선 사회의 한자와 한글 활용의 차이를 간파하고 성서 번역의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7) 민영진,『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46.
18) C. J. Corfe, "Lumen ad Revelationem Gentium", *The Morning Calm* 46 (1894), 50-51.

> 조선 사람이 말할 때는 자신들의 언어로 하지만 식자 계급의 독서는 주로 한자로 쓰인 책만을 읽습니다. 조선인의 구어 곧 입말은 로마자 알파벳 만큼 쉬운 글자로 적은데 그 입말을 살린다면 대부분 조선 사람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언문(En Moun)'이라 합니다. 그러나 식자 계급은 이 언문 알파벳 쓰기를 경멸하며 서찰이나 공식 문서에서는 항상 한자를 사용하고 그들이 읽는 책 역시 중국 학자들의 책과 같은 한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은 메시지가 식자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경멸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한자와 언문 둘 다 사용해야 합니다.

『구약촬요』의 번역 취지는 분명하다. 조선인이 읽기 쉬운 '언문'으로 성서를 옮긴다면 양반층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문과 한글로 병기(倂記)한 것이다. 고요한 주교의 설득은 계속된다.

> 중국어 고전 문체로 된 성경 번역본이 한두 가지 있는데 조선 유학자들이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성서의 한문은 이 중국어 번역본에 기초를 두고 언문 부분은 여기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한문에서 조선어로 번역해 문장을 마련해 가면 됩니다. 준비되면 한문과 언문이 교대로 한 줄씩 보이게 인쇄될 것입니다. 이런 한문-언문 교차 편집 방식은 조선인들의 서당에서 보는 책과 같은 방식입니다.[19]

트롤로프(M. N. Trollope)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자가 "공식적, 외교적 문서"에 활용되지만, 점차 '언문'(vulgar script)이 증가하면서 두 문자를 함께 쓰는 방식이 유행한다고 고요한 주교의 입장에 동조한다.[20] 고요한 주교는 본래 한문 한 줄에 한글 번역 한 줄로 편집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만민광』과 『구약촬요』는 문단 중심으로 한문과 한글 번역을 배치하여 출판하였다.

당시 장로교는 1892년 네비우스의 '삼자정책'(三自政策)과 함께 '모든 종교문서는 순한글로 작성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21] 그러나 고요한 주교는 조선의 문서가 대부분 한자로 작성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글 번역 위주의 선교사들의 방침과 달리 '한문-한글'이라는 '제3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한영균은 '漢文-한글 對譯本'으로 부른다.[22] 여기서 한문과 한글로 인쇄하

19) C. J. Corfe, "The Bishop's Letter", *The Morning Calm* 42 (1893), 173.

20) M. N. Trollope, *The Church in Corea*, 24.

21) C. C. Vinto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XI:9 (1893); 민경배, 『韓國基督敎會史』, 신개정판 (서울: 연세대출판부, 2000), 198-199에 번역문이 소개되어 있다.

22) 한영균, "종고성교회(宗古聖敎會) 간행(刊行)의 국어사(國語史) 자료(資料)에 대하여", 「언

는 대역본(diglot) 또는 '병용'은 섞어 쓰는 '혼용'과 구분되어야 한다. 예컨대 이수정이 1884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간한『현토한한신약성경(懸吐漢韓新約聖書)』은 후자에 해당한다. 즉 한문 성경에 이두식(吏讀式) 토(吐)를 붙여 발행한 것으로 한 문장에 한문과 한글이 뒤섞여 있다. 한문의 뜻을 명확히 하면서 독송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 토씨를 붙이던 전통적 읽기 방식이다. 그러나『조만민광』과『구약촬요』는 한문을 먼저 쓰고 한글 번역을 뒤따라 인쇄한 '한문 한글' 병기이다. 이미 펜윅의『요한복음젼』(1891), 이창직의『牖蒙千子』(1907), 마펫의『眞理便讀三字經』(1908) 등도 같은 방식으로 인쇄한 기독교 문서들이다.

3.3.『구약촬요』와 한글 표기

3.3.1. 띄어쓰기

당시까지 한글 문서와 서적에 띄어쓰기는 시행되지 않았다.『예수셩교젼셔(1887)』,『ᄉᆞ민필지(1889)』,『조만민광(1895)』 등이 대표적이다. 한자 문화권의 영향 때문이지만 한글은 띄어 쓰지 않아도 해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한국어의 종결 어미, 예컨대 '다, 까, 서, 네, 오' 등이 문장의 끝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낱말과 낱말 사이를 띄어 쓰던 서구인에게 띄어쓰기 없는 문장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존 로스(John Ross)는 <조선어 첫걸음 *Corean Primer*>(1877)에서 한글에 없는 띄어쓰기와 가로쓰기를 과감히 적용하였다. 윤치호(1865-1945)는 1896년 영문 잡지 *The Korean Repository*에 한글의 띄어쓰기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23] 같은 해 4월「독립신문」이 띄어쓰기를 공적 문서로서는 처음 선보였다. 이후 H. G. 아펜젤러의「죠션크리스도인회보」(1897년 2월), H. G. 언더우드의「그리스도신문」(1897년 4월)이 띄어쓰기를 수용했다. 한글 성서로는 피득의『시편촬요』가 1898년 띄어쓰기를 적용한 번역본이다. 이처럼 띄어쓰기가 점차 보급되는 상황이었지만『조만민광』의 편집 체제를 따르는『구약촬요』(1899)는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흥미롭게도『구약촬요』에 띄어쓰기를 반영한 본문이 들어 있다. "요습의모든형이그아오요습을팔아에집도로보냄이라"는 25번째 단락의 제목을 붙이고 그 밖의 본문과 달리 띄어 쓰고 있다. 시작하는 줄의 처음 두 칸을 비우고 첫 문장은 띄어쓰기 없이 기록하고 열두 아들에

어사실과 관점」32 (2013), 1-36.

23) 윤치호, "Commas or Spacing," *The Korean Repository* (1896)에서 띄어쓰기가 처음 공론화된 것으로 보인다. 장창일, "한글 띄어쓰기 최초 창안자는 헐버트 아닌 윤치호,"「국민일보」 2024. 10. 9.

관해서는 한 사람씩 소개하며 앞뒤로 한 칸을 비웠다.

> 야고보의아ᄃᆞᆯ이십이형뎨ㅣ니그일홈을아ᄅᆡ긔록ᄒᆞ노니 쟝ᄌᆞ는류변이오 ᄎᆞᄌᆞ는시메온이오 삼ᄉᆞ는리위오 ᄉᆞᄌᆞ는유다오 오ᄌᆞ는셰부륜이오 륙ᄌᆞ는이ᄉᆞ갈이오 칠ᄌᆞ는단이오 팔ᄌᆞ는갓이오 구ᄌᆞ는아셜이오 십ᄌᆞ는납타리오 십일ᄌᆞ는요슙이오 십이ᄌᆞ는변야민이라(창 35:23-26).

비록 완전한 띄어쓰기에 미치지 못하나 고요한 주교 팀이 한글의 새로운 쓰기 방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조만민광』이 보여준 '부분적' 띄어쓰기가『구약촬요』에 나타나지 않는다.『조만민광』은 로스의『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와 같이 신적 호칭(divine names), 곧 '주', '천주', '성신', '예수' 다음에 한 칸을 비워둔다. 경의를 표하는 동양의 기록 예법으로 격자(隔字)다.[24]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거룩한 신명 네 글자를 본디 발음 대신 '아도나이'라고 읽거나 The LORD라고 번역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예법이다. 한글 성서가 계속 번역되면서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함으로써 띄어쓰기가 공식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25] 그러나 가로쓰기는 요원했다. 1945년 조선교육심의회가 가로쓰기를 결의한 후 1961년『개역한글』이 비로소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 시대로 진입할 수 있었다.[26]

3.3.2. 문단표기

『구약촬요』는『조만민광』처럼 본문의 장과 절을 표식하지 않았고 후자의 영문본에 장과 절 표기가 들어 있다. 띄어쓰기는 없지만 문단의 구분은 표기한다. 곧 옛날식 단락 구분 표시인 각설표(各設標) O를 활용한 것이다. 여타의 구두점, 곧 쉼표, 마침표, 물음표 등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3.3.3. 지명・인명 표기

성서의 인명이나 지명은 동양의 독자들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다. 고요한

---

24) 대두법(擡頭法)은 '왕을 앞으로 들어올린다'는 뜻으로 '대두'는 문장 중에 왕이 언급되면 새로운 줄에 적는 방식이다. 이응호, "최초의 한글성서「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국어교육』44/45 (1983), 432-435를 보라. 이덕주, "성공회 발췌성서 <조만민광> 연구 - 제3의 성서로서의 기능과 의미", 283.

25) "최초로 한글 띄어쓰기, 존 로스 선교사로부터 시작되다", 국립 한글박물관 소식지(2017. 2.); 로스는 <조선어 첫걸음>에서 한글 아래 발음기호를 표기하고 영어처럼 낱말마다 띄어 썼다. J. Ross, *Corean Primer*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7).

26) 한겨레신문이 1988년 창간호부터 가로쓰기로 시작한 이래 1999년 조선일보가 마지막으로 대열에 합류하였다.

주교 팀은 한자를 해독하거나 한글 의미를 찾아 애쓰지 않도록 고유명사를 인식할 수 있게 장치한 것이다. 『조만민광』의 목록에 의하면 '序 셔' 다음 쪽에 '凡例'(범례)를 두었다. 다음은 셋째와 넷째 항목이다.

- 글가온ᄃᆡ는무릇나라희일홈이나땅의일홈이나잇ᄂᆞᆫᄃᆡ다곱을곱을ᄒᆞᆫ쥴노써그겻희표ᄒᆞ엿스니예루사릠ᄀᆞᆺᄒᆞ니라
- 글가온ᄃᆡᄂᆞᆫ무릇사ᄅᆞᆷ의일홈이잇ᄂᆞᆫᄃᆡ다곳은쥴노써그겻희표ᄒᆞ엿스니마리아ᄀᆞᆺᄒᆞ니라

다만 '가나안'처럼 인명과 지명이 동시적인 경우 '곧은 줄'(ㅣ)과 '곱을곱을ᄒᆞᆫ 줄'(ᄀᆞᆺ)을 양쪽으로 긋거나, 둘 중 하나만 표기한 경우가 있다. 『조만민광』처럼 '목녹'(目錄)과 '범례'(凡例)가 없지만 『구약촬요』에 똑같이 적용되었다.[27] 특히 마지막 '범례'는 한글 표기와 관련한 중요한 지침이다. "셔국땅일홈과사ᄅᆞᆷ 일홈이한문으로써번역ᄒᆞ기어렵고또이에음이서로맛지아니ᄒᆞ니가히언문으로서닑으라." 예컨대 아담은 한자로 가까운 발음이 아당(亞當)이나 정확한 음이 아니라서 본래 음가를 따라 언문 '아담'으로 적는 식이다. 『구약과략』에도 똑같은 기호가 활용되었다.

3.3.4. 한문과 한글 표기에 작은 글씨

엇지다톰이잇ᄉᆞ리오(13:8)
싹이터지고(40:10)
쟝ᄎᆞᆺ슐잔을(40:13)
ᄆᆞᆺ춤ᄂᆡ/마침내(40:23)
ᄒᆞᆫ쥴기에/한줄기에(41:5)
知埃集島有糧/에집도에량미잇ᄂᆞᆫ줄알고 (42:1)
자루ᄅᆞᆯ쏫으매곡가가(42:27)
不禁涕淚急入內室而哭/급히안으로드러가울다가낫츨씻고(43:30)
그목을안고울더라(45:14)

위의 경우는 교정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귀여운 실수'로 보인다. 오탈자를 수정할 때 활자의 크기가 다른 것이다. 유추하건대 열악한 출판 현

27) 「독립신문」도 고유명사의 오른쪽 옆에 선을 그어 표기하였다. 즉 사람 이름에는 홑 선을, 나라나 지역 이름에는 꼬불꼬불한 선 대신 두겹의 선으로 구별하였다. 버든의 <구약과략>도 동일하다.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에는 고유명사의 표기에 방선법(附錄 2. 文章 符號)이 명시하였다.

장에서 교정에 필요한 여분의 활자까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급조한 새로운 활자의 상태는 기존 활자의 크기와 차이가 있고 활자에 묻은 잉크의 농도에 미세한 불일치가 만든 결과다.[28] 『구약촬요』 본문의 처음 부분보다 뒤로 갈수록 작은 활자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4. 『구약촬요』의 구성과 저본

『구약촬요』는 창세기 50장을 35단락으로 구성하고 일련번호 없이 제목을 한자와 한글로 적었다. 편의상 숫자를 넣어 전체 단락의 제목을 알아본다. (구불구불한 밑줄은 지명)

1) 텬쥬ㅣ비로소텬디만물과밋인류를지으심이라(1:1-2:3)
2) 인류의원조ㅣ에뎐에셔무탈히거쳐ᄒᆞᆷ이라(2:4-10, 15-25)
3) 인류의원조ㅣ쳐음으로죄를범ᄒᆞ고벌을밧음이라(3:1-24)
4) 지인이그아오아별을죽임이라(4:1-17, 25, 5:4-5)
5) 노에미리방쥬를ᄀᆞᆺ촘이라(6:1, 5-8, 13-14, 17-19, 22)
6) 노에방쥬에드러가홍슈를피ᄒᆞᆷ이라(7:1-2, 4-5, 7-10, 17-19, 21, 23-24)
7) 노에ㅣ방쥬에나옴이라(8:1, 3-12, 15-16, 18-22; 9:1, 11-15, 18-19, 29)
8) 텬쥬ㅣ셰샹사ᄅᆞᆷ의말을혼잡ᄒᆞ시고ᄉᆞ방에분산ᄒᆞ심이라(11:1-9)
9) 아브람이텬쥬의부르심을님어가나안따흐로옴게거ᄒᆞᆷ이라(11:27-32; 12:1-5, 7-8; 13:2, 5-6)
10) 아브람이밀긔셰덕을만남이라(14:1-2, 9-12, 14-20)
11) 텬쥬ㅣ아브람으로더부러그후예번셩ᄒᆞ기를언약ᄒᆞ심이라(15:1-7, 13, 16, 18)
12) 아브람이셔ᄌᆞ이스마열을나흠이라(16:1-2, 4-12, 15-16)
13) 텬쥬ㅣ명ᄒᆞ야할손례를셰우시고다시아브라함일홈을주심이라(17:1, 3-10, 12-21)
14) 아브라함이텬신나타남을보고또텬쥬끠구ᄒᆞ야소도마일읍을멸치말게ᄒᆞᆷ이라 (18:1-2, 9-16, 20-33)
15) 소도마와고모라ㅣ지앙을닙을때에로도ㅣ버셔나면ᄒᆞᆷ이라(19:1-7, 9-29)
16) 아브라함이덕ᄌᆞ이ᄉᆞ악을낫코셔ᄌᆞ이스마열을쫓차냄이라(21:1-21)
17) 텬쥬ㅣ아브라함을시험ᄒᆞ심이라(22:1-13, 15-19; 23:1-2, 19)
18) 이ᄉᆞ악아쟝가들미라(24:1-4, 10-12, 15-17, 23-38, 49-51, 58-61, 63,

28) 『개역개정』은 원문에 없는 표현이 번역 과정에 첨가될 시 작게 표기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시 84:5).

66-67; 25:7-9)
19) 이ᄉᆞ악이두아ᄃᆞᆯ을나하기ᄅᆞᆷ이라(25:20-34; 26:34-35)
20) 야고보ㅣ아바지ᄅᆞᆯ속이고형을ᄃᆡ신ᄒᆞ야츅복을봄이라(27:1-22, 24-40)
21) 야고보ㅣ카란으로도망ᄒᆞ야다라날때에텬쥬ㅣ현몽ᄒᆞ심이라(27:41-46; 28:1-5, 10-22)
22) 야고보ㅣ카란따헤우거ᄒᆞ야품팔고장가들미라(29:1, 13-30, 43; 31:1-3, 17-18)
23) 야고보ㅣ가나안따흐로도라옴이라(32:1-13, 20-22, 24-31; 33:1, 3-5, 8-11)
24) 야고보ㅣ평안이가나안따헤거ᄒᆞᆷ이라(33:18-20; 35:1, 6-7, 9-14, 16, 19-20)
25) 요습의모든형이그아오요습을팔아에집도로보냄이라(35:22-29; 36:6-8; 37:1-36)[29]
26) 요습이에집도옥즁에갓침이라(39:1-23)
27) 요습이옥즁에셔히몽ᄒᆞᆷ이라(40:1-23)
28) 요습이파로의ᄭᅮᆷ을풀고국은을닙어놉흔벼ᄉᆞᆯᄒᆞᆷ이라(41:1-17, 25-30, 32-40, 42-43, 45-57)
29) 요습의졔형이첫번에집도에ᄂᆞ려가무곡ᄒᆞᆷ이라(42:1-13,15-29,35-38)
30) 요습의졔형이그아오변야민을ᄃᆞ리고두번ᄌᆡ에집도에ᄂᆞ려감이라(43:1-31, 33-34)
31) 요습이변야민을에집도에두고져ᄒᆞ니유다ㅣ동힝ᄒᆞ기ᄅᆞᆯ이걸ᄒᆞᆷ이라(44:1-21, 24-34)
32) 요습과졔형이서로지면ᄒᆞ고부친야고보반이ᄒᆞ기ᄅᆞᆯ쳥ᄒᆞᆷ이라(45:1-7, 9-10, 14-18, 21-23, 25-28)
33) 야고보와권쇽이에집도에ᄂᆞ려감이라(46:1-6, 26, 28-34; 47:1-12, 27-30)
34) 야고보림죵시에ᄌᆞ손을위ᄒᆞ야츅복ᄒᆞ고볍셰ᄒᆞᆷ이라(48:1-3, 8-11, 14-19, 21; 49:1, 33)
35) 요습이그부친야고보ᄅᆞᆯ가나안짜헤영장ᄒᆞ고에집도에도라와늙어죽음이라(50:1-5, 7-8, 12, 14-15, 17, 19-26)

4.1. 두 권으로 기획된『구약촬요』

『구약촬요』는 본래 두 권으로 기획되었다. 고요한 주교는 오경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1권은 창세기 요약, 2권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요약으로 발행할 계획이었다.[30] 다음은 애초 설계했던 2권의 예상 본문이다.

29) 25)-27), 33)-35) 단락의 한글 제목은 할주처럼 두 줄의 작은 글씨로 새겼는데 편집자의 실수다.

<표 1>『구약촬요』2권의 예상 본문

출애굽기		민수기
1장	11:1-23, 30 등	10:11-12, 29 등
2장	12:16	11:1-23, 30 등
3:6-14, 22	14:1-15; 19-25; 27, 30. 31	12:16
4:1-20, 27	15:22 등	13:1-2, 17-31
5장	16:1-15, 31. 35	14:1-4, 11, 22-25, 39 등
6:2-13	17장; 18:5, 7, 13 등	16:1-7, 12, 16, 18-22, 25-35
7:6-17, 20-24	19:1-20	20:1-3, 7-12, 22-25, 27 등
8:1-8, 12-25 등	20:1-21	21:1-9, 21-24, 31 등
9장	24:3-8, 12-14, 18	23장
10:3-27	31:18	24:1-18, 25
11:1-9	32:1-6, 15 등	32:1, 5-7, 16-18, 28 등
12:1-39	33:1-11	신명기
8:17 등	34:1-9, 27 등	31:1-21
10:11-12, 29 등	40:1-16, 34 등	32:44 등

『구약촬요』의 두 번째 책은 끝내 완성되지 못하였다. 고요한 주교가 물러나면서 나머지『구약촬요』의 출간을 촉구하였으나 1922년 4월 트롤로프 주교는 재정적인 문제와 번역 요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신간의 건을 부결시키고 해당 본문을「조선성공회보」에 게재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31]

4.2.『구약촬요』의 저본 문제

최근 정중호가 한국 성경 역사의 관점에서, 한영균이 국어사 자료의 관점으로『구약촬요』를 다룬 적이 있으나 저본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다. 한영균의 다음 문제 제기는 새겨들을 만하다.

> 舊約撮要의 경우도 抄譯에 참조한 원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漢文과 한글 본문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 舊約撮要의 저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1892년 홍콩의 聖保羅書院에서 간행한 舊約課畧을 들 수 있다. 舊約課畧의 서문에 따르면 이 漢文本은 영국의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던 M. E. Glazebrook의 *Lessons from the Old Testament*를 성공회 홍콩교구 주교였던 John

30) C. J. Corfe, *Anglican Church in Corea*, 23-24.
31) 聖公會,「조선성공회보」54 (1922), 5.

> Burdon(중국명 包爾騰)이 번역한 것으로, 성경 구절은 1874년에 간행된 본문에 한정된 것이다. … Schereschewsky(중국명 施约瑟)의 淺文理 舊約을 참조했다고 밝힌다. 舊約撮要의 漢文 부분과 舊約課略을 대조해 보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부분이 많다.[32]

그런데『구약촬요』의 발간 이후에 번역 관련 소개나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고요한 주교의 서신이나 저서에서 찾을 수가 없다.『조만민광』의 경우 상해 주교 셰레셰프스키와 홍콩 주교 버든, 그리고 <위원회본>, 또는 <대표자역본>(1854)을 언급한다.[33] 특히 셰레셰프스키의 <창세기관화(創世記官話)>(1866)와 <쉬운 문리 구약, *Easy Wenli Old Testament*>(1874)은 중국에도 알려진 번역본이다. 그런데도 고요한 주교는『구약촬요』도『조만민광』과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며 직접 저본을 언급하지 않은 채 "홍콩 주교 버든"을 참조한 것이라고 밝힌다.[34] 그것은 버든(J. S. Burdon, 1826-1907)의 구약 교재 <구약과략(舊約課略)>(1892)을 가리킨다. 왜 셰레셰프스키의 '쉬운 문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옥스퍼드 운동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셰레셰프스키 주교는 리투아니아 출신 유대계로서 미국에 이주 후 장로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성공회로 귀의하였다. 그의 복음주의적 성향은 전례적 교회를 지향하던 고요한 주교의 노선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셰레셰프스키 번역을 의존하지 않았을 것이다.[35]

<구약과략>과 비슷한 가톨릭의 한문본 <성교감략(聖教鑑略)>(1866)과 한글본(1883년) 역시 참조의 대상이었다.[36] <성교감략>은 성서의 주요 본문을 압축하여 번역한 것으로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성공회의 <구약과략>과 가톨릭의 <성교감략>은 공통적으로 각 단원의 압축된 제목을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 해설을 덧붙이거나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를 짧게 설명하기도 한다. 두 책은 완역본이 아니라 초심자들에게 필요한 성서에 대한 상식과 전례를 위한 문서들이다.『구약촬요』번역자들은 활용 가능한 성서를 두루 참고하면서 '전례적 교회'를 위한 번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32) 한영균, "종고성교회(宗古聖教會) 간행(刊行)의 국어사(國語史) 자료(資料)에 대하여", 9-10.
33) C. J. Corfe, *Anglican Church in Corea,* 22-23.
34) Ibid., 23.
35) 이경호 주교는 대담에서 대한성공회의 전례는 영국교회보다 더 원칙적이며 엄격하여 영국 교인들이 놀란다고 증언한다.
36) 정중호, "19세기 구약성경과 해석의 역사",「신학사상」168 (2015), 7-41, 특히 19-26.

4.3. 번역의 이모저모와 국어학적 특징

4.3.1. 신명 번역

중국의 한문 성서 <위원회본>은 하나님을 신(神)과 상제(上帝)로 다른 판본으로 출간하여 혼선을 가중하였다. 존 로스는『예수셩교젼셔』에서 '하느님' 또는 '하ᄂᆞ님'을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며 땅에서 높으신 분"(the Ruler above and the supreme on earth)이라는 뜻으로 채택한다. 그러나『구약촬요』는 <위원회본>의 상제(上帝)와 <구약과략>의 상주(上主)를 '텬쥬'(天主)로, 야화화(耶和華)를 주(主)로 일관되게 옮겼다.『구약촬요』에 등장하는 신명은 아래와 같이 옮겼다.

ㄱ) 텬쥬: 엘로힘(אֱלֹהִים)
ㄴ) 쥬: 거룩한 네 글자(יהוה)
ㄷ) 젼능ᄒᆞᆫ 텬쥬(창 17:1; 28:3; 35:11), 젼능ᄒᆞ신 텬쥬(43:14; 48:3): 엘 샤다이(אֵל שַׁדַּי)
ㄹ) 지극히 놉흐신 텬쥬(창 14:18), 지존 텬쥬(14:19,20): 엘 엘리온(אֵל עֶלְיוֹן)
ㅁ) 쥬텬쥬(15:2): 아도나이 엘로힘(אֲדֹנָי יֱהוִה)

그밖에 버든의 '상주'는 몇 차례 언급되지만 '천주'와 구별하여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샹쥬/上主'(17:7) - 후손의 하나님, '쥬샹쥬/主上主' (24:12, 27) -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할 때이다. 한편 אֵל רֳאִי (엘 로이, 16:13), אֵל עוֹלָם (엘 올람, 21:33), יְהוָה אֱלֹהֵי הַשָּׁמַיִם וֵאלֹהֵי הָאָרֶץ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 24:3), אֵל בֵּית־אֵל (엘 벧엘, 35:7) 등은『구약촬요』에 번역되지 않았다.

4.3.2. 고유명사

『구약촬요』가 한 저본을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조만민광』이 <위원회본>의 부ᄉᆡᆼ(復生) 대신 모리슨역의 부활(復活)을 선택하듯 히브리 발음과 한국어 현실음에 가까운 소리를 취한 것이다. 인명과 지명의 한글과 한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오른쪽은『개역개정』의 표기다.

<표 2>『구약촬요』의 고유명사 표기

에뎐(愛田) - 에덴 아담(亞當) - 아담	사ᄅᆡ(沙來) 사라(沙羅) - 사라	이부라다(以府羅多) - 에브라다

에와(曖娃) - 하와 ᄀᆡ인(該忍) - 가인 아별(亞別) - 아벨 셰토(世吐) - 셋 노에(魯曖) - 노아 셤(閃) - 셈 함(含) - 함 야벳(夜培) - 야벳 타라(他羅) - 데라 아브람(亞巴覽) - 아브람 아브라함(亞巴羅咸) - 아브라함 로도(老道) - 롯 소도마(所道馬) - 소돔 고모라(古毛羅) - 고모라 요단(約但) - 요단 밀긔셰덕(密基洗德) - 멜기세덱 다마ᄉᆡᆨ/대마ᄉᆡᆨ(大馬色) - 다매섹 이리아살(以利亞薩) - 엘리에셀 가나안(迦拿安) - 가나안 에집도(埃集島) - 애굽 바랏대(百辣大) - 유브라데	하가르(夏葛) - 하갈 이ᄉᆞ악(以士岳) - 이삭 이스마열(以士馬悅) - 이스마엘 갈ᄃᆡ아(葛臺亞) - 갈대아 아모리(亞摩哩) - 아모리 파란(巴蘭) - 바란 모리아(母里亞) - 모리아 라반(羅班) - 라반 이소(以掃) - 에서 야고보(耶古甫) - 야곱[37] 헷 사ᄅᆞᆷ(赫人) - 헷 사람 카란(迦蘭) - 하란 파단아람(巴端亞藍) - 밧단아람 셔일(西日) - 세일 이돔(以東) - 에돔 야복(野伏) - 얍복 이스라엘(以色列) - 이스라엘 편이열(便以悅) - 브니엘 시검(示劍) - 세겜 ᄇᆡ탈(伯脫) - 베델 벳드름(伯多蘭) - 베들레헴	사름(撒廩)/야루사름(耶路撒廩) - 살렘/예루살렘 리ᄇᆡᆨ가(利百加) - 리브가 리아(利亞) - 레아 라결(羅結) - 라헬 갈ᄃᆡ아울읍(蔚邑) - 우르[38] 별시파(別是巴) – 브엘세바 희ᄇᆡ론(希伯崙) - 히브리 피두열(彼斗悅) - 브두엘 갑녈(甲悅) - 가브리엘 파별(巴別) - 바벨론 유다(猶大) - 유다 요습(要習) - 요셉 도단(途丹) - 도단 류변(流便) - 르우벤 변야민/번야민(辯夜敏) - 베냐민 시메온(施每溫) - 시므온 미뎐(米田) - 미디안 보듸파(保支波) - 보디발 마나셔(瑪拿西) - 므낫세 이파림(以波林) - 에브라임 고션(古仙) - 고센

4.3.3. 한자어 vs 고유어

『예슈셩교젼셔』와『시편촬요』에는 고유어 번역이 상당수 포함되었으나 이후 번역이 진행될수록 한자 표현이 더 많아진다.『구약촬요』의 주요 번역어는 다음과 같다.

37) 『조만민광』은 耶古甫와 爺伋으로 표기하였다(마 10:2; 눅 1:33).

38) 소돔을 가리킬 때도 '일읍'으로 번역되었다. 히브리어는 '온 성읍'(כָּל־הָעִיר) 곧 도시 전체를 가리킨다.『개역개정』은 성(城)을 택한다. 한자 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자연 발생적 마을이라면 城은 방어를 위한 군사 시설이 들어선 인위적 공간이다. 히브리어 이르(עִיר)는 나뉘지 않고 둘 다 해당한다.『구약촬요』는 대부분 '읍'으로 옮겼다. 울 읍, 소도마 읍, 에집도 각읍 등.

처음때(1:1): 한문 '태초'(太初)와『공동번역』'한 처음'과 사뭇 다르다.
허공(1:6,8): 궁창을 가리키며 하늘을 뜻한다.
삼광(1:14): 해, 달, 별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한문본에는 '삼광'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았다.
륙축(1:24): 소, 말, 양, 돼지, 개, 닭 등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 동물을 가리킨다.
긜즘싱(1:24): '기는 것'을 가리키고 더러 '곤충,' 또는 '버레'로 번역하였다.
흙으로써사ᄅᆞᆷ을(2:7): 한문 用土造人을 그대로 옮겼다. 원문은 '땅의 먼지'(עָפָר מִן־הָאֲדָמָה).
싱명수(2:9): 생명지수(生命之樹), 생명나무
별션악수(2:9): 분별선악지수(分別善惡之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싱민(3:20): 군생지모(群生之母),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미.
샹싱(常生. 3:22): 영생(永生)
인민(人民. 6:1; 14:16): 사람, '부녀와 친척'(?)[39]
쟝마(7:4; 8:5): 한자 '림우'(霖雨)
낮밤: 주야
다못: 함께, 더불어(4:4; 18:11; 27:37; 48:16)
할손례(割損禮): 할례(17:10; 21:4)
ᄒᆞᆫ솔터(一矢): 화살 한바탕 거리(21:16)
싀량(柴糧): 낙타를 먹일 풀과 양식(24:25)
산양(獵): 사냥(25:27)
요긔ᄒᆞ더니: 먹다(食)
조찰ᄒᆞ니(光潔): (피부가) 매끈하다, 깨끗하다(27:11).
시러곰(부득): 능히(36:7)
큰 션ᄇᆡ(博士): 점술가와 현인(41:8) cf. Korean Scholars
무곡(貿穀): 곡식을 교환하다.
진가(眞假): 진짜 가짜
통사(通事) 전어(傳語): 통역사가 번역
착됨(誤): 잘못됨

로스 번역의 '넘ᄂᆞᆫ절'이 한국교회에 정착되지 않고 한자어 '유월절'이 차지한 것은 기독교 유산의 손실이다. 초창기 한글 번역의 묘미를 놓친 것이다. 마찬가지로『구약촬요』의 빼어난 번역어, 예컨대 '처음때,' '큰 빗,' 'ᄒᆞᆫ

39) 고대 동양에서 '인'(人)은 지배층을, '민'(民)은 보통 백성이나 계급적 하층민, 피지배층을 지칭한다. 사상적으로 보면 '인'은 개인의 인간적인 모습을, '민'은 공동체적 성격을 드러낸다. 북한에서 주로 언급하는 용어로 굳어 남한에서는 마치 금기어처럼 간주되어 피하는 낱말이다.

솔터,' '큰 선비' 등이 아쉽게도 '태초,' '큰 광명,' '화살 한바탕 거리,' '박사'로 한자식 표현에 밀려나고 말았다.

4.4. 국어학적 면모와 특징

『구약촬요』에는 19세기 말 한국어 형태와 한글 표기 등을 볼 수 있는 원재료(raw materials)가 풍부하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국어학적 측면을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지만, 관련 연구를 위해 정리해 둔다.

4.4.1. 주격 및 보격 조사 'ㅣ'의 활용

가톨릭의『고경』이 세로쓰기와 주격 조사 'ㅣ'를 독립적으로 활용하듯『구약촬요』도 같은 방식을 취한다. 로스의『조선어 첫걸음』을 보면 "ᄂᆡ 되션 말 보이고쟈 한다"(나는 조선 말을 배우고자 한다)에서 '나'의 주격 조사로 'ㅣ'를 쓴다.[40] 종성의 유무에 따라 '은/는, 이/가'로 활용되는데『구약촬요』는 주로 'ㅣ'를 활용한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고어체로 남아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홑소리 뒤에 주격 조사 'ㅣ'가 붙어 다음과 같이 활용되었다.

> 불휘ㅣ 기픈 남ᄀᆞᆫ 브ᄅᆞ매 가지ㅣ 길어(용비어천가)
> 뫼ㅣ 높다 하되 ᄒᆞ늘 아래 메리로다(양사언)
> 나라ㅣ 림ᄒᆞ시며(吾主禱文)

주격 조사 'ㅣ'는 높임말 '께서'로 바꿀 수 있다. 보통은 '텬쥬ㅣ'로 표기하였으나 '텬쥬끠셔'가 활용된 예도 있다(창 21:19). '천쥬,' '나,' '뎌' 등 인칭대명사와 고유명사 다음에 주격 조사 '은/는, 이/가'처럼 'ㅣ'를 쓴 것이다. 현대 한글 일인칭 주격 '내가'는『구약촬요』의 '나ㅣ'와 같은 형태고 거기에 주격 조사 '가'가 덧붙은 조사의 중복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ㅣ'가『구약촬요』에 보격 조사로도 활용되는 예도 허다하다.

> 길이살게ᄒᆞᄂᆞᆫ나무ㅣ라
> 남ᄌᆞᄂᆞᆫ이시ㅣ라고ᄒᆞ고여인ᄂᆞᆫ이ᄉᆞㅣ라(할주 2:23)
> 녀인의후예는곳구셰쥬예수그리스도ㅣ시니라(할주 3:15)
> 녀인을일홈ᄒᆞ야ᄀᆞᆯᄋᆞᄃᆡ에와ㅣ라하니(3:20)
> 엇지아오ᄅᆞᆯ직희ᄂᆞᆫ쟈ㅣ니잇가(4:9)
> 일홈ᄒᆞ야ᄀᆞᆯ아ᄃᆡ셰토ㅣ라ᄒᆞ고(4:25)

40) J. Ross, *Corean Primer,* 6.

너ㅣ다ᄉᆞ리ᄂᆞᆫ바ㅣ니(16:6)
사ᄅᆡ라부ᄅᆞ지안코사라ㅣ라(17:15)
하갈은무ᄉᆞᆷ연고ㅣ뇨(21:17)
리ᄇᆡ가ᄂᆞᆫ피두열의나흔바ㅣ오(24:15)
발뒤ᄎᆞᆨ을잡거ᄂᆞᆯ일홈을야고보ㅣ라(25:26)
소ᄅᆡᄂᆞᆫ야고보ㅣ오손은이소ㅣ로다(27:22)
ᄇᆞᆰ은아ᄎᆞᆷ에야고보ㅣ리아ㄴᆞᆫ줄을알고(29:25)
에ᄀᆞᆁᆞᆫ도에판쟈ㅣ라(45:4)
쟝ᄌᆞㅣ니(48:18)

한 해 전에 발간된 『시편촬요』에서는 주격 조사 'ㅣ'가 활용되지 않고 '씌셔, 은/는, 이/가'를 쓴다. 피득의 과감한 판단에 놀라지만 고요한 주교가 『구약촬요』에서 주격조사 'ㅣ'를 고집스럽게 활용한 것은 '종고성'교회의 전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지 추측해 본다.

4.4.2. 표음주의 vs 형태주의

혹자는 이 쟁점을 국어 영역으로 치부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성서학에서 고전어 연구는 어원의 파악으로 시작되지 않는가? 한글은 '훈민정음'(正音)에서 알 수 있듯 음가를 강조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형태를 중요시했다. '소리'에 따른 간결한 표기가 여성들을 비롯한 비한자 사용층에 쉽게 파고들 수 있었다. 『구약촬요』를 비롯한 한글성서에는 표음주와 형태주의가 공존했다. 일제의 만행은 한글 정서법 및 표준어 맞춤법 제정의 간섭으로 시작한다. 경술국치(1910) 한 해 전 국문연구소는 한글의 표기법에 기초인 '의정안'(1909)을 발표했으나 일제는 1912년 「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을 공표하며 아래아(ㆍ)를 폐지하고 표음주의에 따른 표기법을 따르게 하였다.[41]

기록을 위해서는 표음주의가 편리하지만 뜻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반면 표의주의, 또는 형태주의는 어근의 형태소를 유지하기 때문에 실제 발음과 차이가 난다. 이런 점에서 『구약촬요』의 표기는 한국어의 형태론 연구에 훌륭한 자료다. 다음은 『구약촬요』에 보이는 예를 일부 옮겨 적은 것이다. 이후 괄호 안의 표기는 『개역개정』의 것이다.

41) 이상혁, "표기법 어문정책의 변천과 그 역사적 의의 - 형태주의와 표음주의의 대립을 중심으로 - " (국제 한국어 응용언어학회 제6회 국제학술대회, 2015. 7. 21.-22.), 233-241.

<표 3>『구약촬요』의 표기법

빗치(빛이)	싸코(쌓고)
는화(나누어)	더부러(더불어)
버슴을(벗음을)	아론톄(알은체)
역거(엮어)	쑤지져(꾸짖어)
임의(이미)	비돍이(비둘기)
져져야(젖어야)	단이고(다니고)
흙으로(흙으로)	깃버ᄒᆞ더라(기뻐하더라)
도라간(돌아간)	죡하(조카)
일코(잃고)	만하(많아)
직희게(지키게)	슷혜/슷혜/슷희(끝의?)
나코(낳고)	도라왓도다(돌아왔도다)
무러(물어)	낫낫치(낱낱이)
열어(여러?)	맛당히(마땅히)
낫츨(낯을)	나ᄌᆡ(낮에)
옷슬(옷을)	맛참ᄂᆡ(마침내)
올흔(옳은)	노흔(놓은)
닥가(닦아)	쫏차(쫓아)
잇글고(이끌고)	엇엇더니(얻었더니)
꼭닥이(꼭대기)	맛하(맡아)
흣헛시니(흩었으니)	드른지라(들은지라)
묵글ᄉᆡ(묶을새)	몃치뇨(몇이뇨)
셜워ᄒᆞᆷ이(서러워함이)	뜻밧긔(뜻밖에)

최초 한글맞춤법은 1933년에 발표되었다. 최현배, 이극로 등이 주도한 조선어학회의 핵심적 주장은 '형태 중심의 맞춤법'이다. 예컨대 꼭대기나 중심을 뜻하는 '머리'는 소리에 따라 '말이, 마이, 마니, 마리,' 또는 '마루, 모루'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된다. 표음주의다. 그렇다 보니 본뜻과 형태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여기에 형태주의가 대두된다. 조선어학회는 제각각 다른 표기의 혼선을 줄이면서 본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는' 형태주의를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구약촬요』의 표기는 현대 국어학의 형태주의와 표음주의의 과도기를 보여주는 훌륭한 범례이다.

4.4.3. ㅎ종성 체언

따히/싸흐/따헤/싸헤(땅) 우희(위) 는화/난화(나누어) 깁히(깊이) 밧헤(밭에) 나흐니(낳으니) 사회/堉(사위, 19:12, 14) 나라흘(나라를, 25:23의 '두나

라히네ᄐᆡ즁에잇셔'와 비교하라) 나히(나이) 압흐/ 압희(앞) 일홈(이름) 밧희/田(밭에) 집힝이/杖(지팡이) 싸홈/爭(싸움) 낫흘/面(낯을) 싸흐니/築(쌓으니) 겻희/旁(곁에) 만흔/多(많은) 너흐니(넣으니) 잇히/二年(이태) 아희/童(아이) 긋희(끝의) 헤ᄂᆞᆫ/헤리라(세다) 등은 당시 발음과 표기를 통해 ㅎ종성의 종류를 헤아려 볼 수 있다.

4.4.4. 두음법칙

령혼(영혼) 녯적에(옛적에) 녀인(여인) 류리(유리) 닐곱(일곱) 님군(임금) 닐러(일러) 넉이시더라(여기시더라) 니ᄅᆞ매(이르매) 닙히고(입히고) 락(낙) 량미(양미) 련습ᄒᆞᆫ(연습한) 례물(예물) 롱담(농담) 륜회(윤회) 륙축(육축) 리별(이별) 렬국(열국) 륙십륙인(육십인) 리롭게(이롭게) 등이 있다.

4.4.5. 구개음화

됴케(좋게) 뎨일일(제일일) 륙디(육지) 일톄(일체) 뎌희(저희) 뎡쳐(정처) 뎍쟈(적자) 디하(지하) 뎌(저) 몽됴(몽조) 슈텩ᄒᆞᆫ쟈(수척한자) 톄ᄒᆞ고(체하고) 형뎨(형제) 지톄(지체) 뎌긔(저기) 뎡ᄒᆞᆫ(정한) 신톄(신체) 등이 있다.

4.4.6. 원순모음화

어두옴(어두움/어둠) 아오(아우) 다톰(다툼) 싸홈ᄒᆞᆫ지라(싸움한지라) 더옥(더욱) 가죡(가죽) 감초아(감추어) 슈플에(수풀에)

22:13 거륵ᄒᆞᆫ(거룩한) 믁시즁에(묵시 중에) 믁믁히(묵묵히)

24:63 어로믄지면(어루만지면)

27:12 얼골이(얼굴이) 아롬다오니(아름다우니) 입마초라(입맞추라) 가도니(가두니) 베프쇼셔(베푸소서) 마읍쇼셔(마옵소서) 몬져(먼저) 등이 있다.

4.4.7. 기타

- '적다'의 활용: 젹게보거ᄂᆞᆯ(16:4), 쟝ᄌᆞ의명분을젹게(25:34), 젹은딸(29:16).
- 모음탈락 또는 자음첨가 현상: ᄇᆡ암(뱀) 새암(샘), 짜/따 (가끔 '쌍'으로 표기) 버레(벌레).
- 의존명사 '바': 쟝ᄎᆞ나흘바쟈(17:21), 쑴꾼뱌쟈(37:5), 묵근뱌쟈(37:7), 너희ᄒᆞᄂᆞᆫ바쟈(44:15), 무릇잇ᄂᆞᆫ바쟈(46:1). 의존 명사 '바'가 한자어 者와 나란히 나온다.
- 활자가 잘못 뒤바뀐 예:

불진져(37:20) ㅡ> 볼진져
더짐이가ᄒᆞ니라(37:22) ㅡ> 던짐이가하니라
염글(41:27) ㅡ> 영글
동풍ᄆᆞ에ᄅᆞᆫ쟈(41:27) ㅡ> 동풍에ᄆᆞᄅᆞᆫ쟈
풍년(41:27, 53) ㅡ> 풍넌
사ᄅᆞᆯ의게(41:56) ㅡ> 사ᄅᆞᆷ에게
온나라ᄒᆞᆯ(41:41) ㅡ> 온 나라를
별셰(34단락 제목) ㅡ> 별세

이상에서 보듯『구약촬요』를 비롯한 초기 한글 성서는 현대 한국어의 문법, 한글 표기 등에 관한 보고라고 할 만하다. 그리하여 초기 한글 성서에 대한 국어 및 한글학자의 적극적인 연구와 협력을 기대하고 요청하기도 하였다.『한글성서와 겨레문화』,『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 등은 기독교와 한글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42]

5.『구약촬요』의 신학적 평가

5.1. 전례 독서를 위한 본문

『구약촬요』는 원문을 옆에 두고 정확히 옮긴 번역문이라기보다 유대교의 타르굼, 타티아누스의 '디아테사론,' 그리고 바세(J. Basset, 1662-1707)의 '사중복음서'처럼 엄격하게 말해서 요약 성서에 가깝다. '중역 시대'의 한계이며 초기 선교사들의 당면한 현실적 과제다. 애초 고요한 주교의 목표는 성서의 완역과 히브리 원문의 재건이 아니었다. 따라서 저본이나 번역본의 진정성을 따지기는 사치스러운 일이다. 당장 복음 전파를 위해 현지 언어 습득과 '전례적 교회'를 위한 예배 자료 준비가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구약촬요』 번역팀은 삼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19세기 말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가 무엇보다 불안 요인이었다.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는 일본의 야욕이 현실화되자 노골적인 간섭이 시작되었다. 이에 선교사들은 일본의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된 것이다.[43] 이렇듯 안팎의 악조

42) 기독교와 국문학의 유수한 학자들이 참여한 기획 연구가 결실을 본 바 있다.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한글성서와 겨레문화』(서울: 기독교문사, 1985); 그리스도교와겨레문화연구회,『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서울: 기독교문사, 1991).

43) M. N. Trollope, *The Church in Corea,* 66-67.

건을 이겨내고『조만민광』이 출간되자 고요한 주교는 감격과 기대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마침내 우리는 1년 동안 낭독할 공과책(lesson-book)으로『조만민광』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강가에서 이 책을 우리와 함께 읽겠다는 조선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44]

그는『조만민광』의 가치를 전례적 교회를 위한 '공과책'으로 규정한 것이다. 영국교회의 전례 중심 전통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전술한 대로 고요한 주교는 구약의 오경을 두 권의 전례용 본문으로 출간하려고 했다. 전례적 교회, 곧 하이처치가 요구하는『구약촬요』가 출판되었을 때 고요한 주교의 소회와 평가는 어땠는지 자못 궁금하다. 그가 선교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며 홍보한 <*The Morning Calm*>을 아무리 뒤져보아도『구약촬요』의 출간에 대한 어떤 소식도 찾지 못하였다.

고요한 주교의 '공과'는 오늘날 '전례 독서'(lectionary)에 해당한다, 전례 독서에는 매주 읽을 구약, 서신, 시편, 그리고 복음서 본문이 교회력에 따라 제시된다. 또한 성무일과(daily office)의 매일 조도(Mattins)와 만도(Evensong)를 위한 성공회의 공식적인 전례가 포함된다. 옥스퍼드 운동 이후 영국 성공회의 전례와 성사 중심의 '하이 처치'가 한국에 전래된 결과다. 고요한 주교 시절 서신서 + 복음서, 더러는 구약성서 + 복음서를 읽는 주일이 있다. 따라서 전례 독서를 위한 구약 본문이 반드시 요구되었다.[45]『구약촬요』는『조만민광』처럼 전례 독서는 물론 조도와 만도를 위한 일과 본문으로 기획, 활용된 것이다. 한영균의 종고성교회 간행물 연구에 따르면 고요한 주교는 <聖經要課>(1902), <聖教頌歌> (1903) 등 미사에 필요한 전례서를 발행하여 성공회 예전의 이해와 교우들의 '첨예'(瞻禮)를 높이고자 하였다.[46]

학자들 사이에『구약촬요』의 저본(底本)으로 한문 성경 <문리역>, <위원회역>, <구약과략> 등이 오르내린다. 고요한 주교 또한 책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홍콩 주교 버든의 한문역'을 참고했다고 밝힌다. <구약과략>을 의미한다. 그러나 번역팀은 하나의 저본을 의존하지 않고 여러 번역을 참조하고 KJV까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구약촬요』와『조만민광』의 실질적 책임자 트롤로프 주교는 성서 번역과 선교 정책의 '제3의

44) C. J. Corfe, "The Bishop's Letter (July 1894)", *The Morning Calm* 52 (1894), 146.

45) C. J. Corfe, *Anglican Church in Corea,* 23.

46) 한영균, "종고성교회(宗古聖教會) 간행(刊行)의 국어사(國語史) 자료(資料)에 대하여", 10-12. 하이처치를 위한 '전례서류'로 분류된 수많은 출판물이 소개되어 있다.

길'(The Third Course)을 제시한 것이다.[47] 가톨릭 및 개신교와 구별되는 제3의 교회, 또는 제3의 성서를 위한 번역과 해설이다.

5.2. 번역보다 요약과 해설

과연『구약촬요』는 성서 본문을 얼마나 충실하게 번역하였을까? 번역 특징이 드러나는 몇몇 구절을 제시하며 해설을 곁들인다.

창세기 1:1
『구약촬요』 太初之時天主創造天地
처음때에텬쥬ㅣ텬디를비로소지으셧ᄂᆞᆫ지라
『개역개정』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太初之時'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בְּרֵאשִׁית를 '처음때'로 번역한 것은『구약촬요』의 공헌에 해당한다.『개역개정』의 '태초'와『공동번역』의 '한 처음'과 비교하자면 '처음때'는 고요한 주교의 '제3의 번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구약과략>의 '原始之時'에 가까워 보이는데 아쉽게도 한국교회는 '처음 때'를 외면하고 말았다.

창세기 1:14
『구약촬요』 穹蒼宜輝光衆著以分晝夜以定四時
삼광이잇셔쥬야를ᄂᆞᆫ호고ᄉᆞ시를표ᄒᆞ고
『개역개정』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25
『구약촬요』 六畜昆蟲走獸各從其類
륙츅과곤츙과쥬슈ᄂᆞᆫ각각그류를좃차
『개역개정』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앞 인용에서 '삼광'은 한글 번역에만 나온다. 고요한 주교는 '문자적 번역'(Ipsissima verba)을 주장하지만 원문에 없는 개념을 제시한 것은 약간의 해설이 포함된 것이다. '륙축'(六畜)도 마찬가지다. 원문은 '모든 살아있는

47) M. N. Trollope, "The Island of Kang-hoa", *The Morning Calm* 53 (1894), 172; 이덕주, "성공회 발췌성서 <조만민광> 연구 - 제3의 성서로서의 기능과 의미", 291.

것들'(כָּל־נֶפֶשׁ הַחַיָּה)이나 결국 '소, 말, 양, 돼지, 개, 닭'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창조 신학이 축소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야곱이 밧단아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륙축'은 가축에 해당하는 짐승이다(31:18).

창세기 1:26
『구약촬요』 其像象我儕
그모양을우리와ᄀᆞᆺ치ᄒᆞ야
『개역개정』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뜻하는 한자는 我儕, 我等, 吾等이다. 본문은 '我儕'를 통하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정서적인 연결 및 동료적 느낌'을 강조한 '我等'과 구별한 것이다. 후자는 집단적 대표를 일컫는다. 『기미독립선언문』의 '오등(吾等)'과 비슷한 개념이며 '아등'(我等)은 '우리 누이'처럼 가족 공동체를 포함하는 표현이다(24:60을 보라). 『구약촬요』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를 '그 모양을 우리와 같이'로 앞부분 '형상'을 누락했다. 실수로 보기에 큰 신학적인 주제다. 어떤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요약 성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창세기 3:1
『구약촬요』 園有百樹天主豈語汝云勿食乎
동산에ᄇᆡᆨ가지실과ᄅᆞᆯ텬쥬ㅣ엇지너ᄃᆞ려먹지말나ᄒᆞ시더냐
『개역개정』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백수'(百樹)와 '모든 나무'는 당시 같은 뉘앙스로 읽혔을지 모르나 'ᄇᆡᆨ가지'에서 알 수 있듯 숫자에 갇힌 의미에 가깝다. 히브리어는 כֹּל עֵץ, 곧 (동산의) '모든 나무'다.

창세기 8:22
『구약촬요』 稼穡寒暑冬夏晝夜必不間絶
츈경츄슈ᄒᆞ고하동한셔하고쥬야륜회ᄒᆞᆷ을끈치아니ᄒᆞ리라
『개역개정』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개역개정』의 번역이 '문자적 번역' 그대로며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다. 『구약촬요』의 '츈경츄슈'에서 '봄/츈'과 '가을/츄' 그리고 '륜회함'은 원문에 없는 번역자의 가필(加筆)이다.

창세기 9:18-19, 29

『구약촬요』 魯曖三子閃含夜培出於方舟其裔蔓延徧地魯曖享壽九百五十歲而終
노에의삼ᄌᆞ셈과함과야벳이방쥬에나와그후예가왼셰샹에퍼지고노에가나히구빅오십셰에죽으니라

『개역개정』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의 나이가 구백오십 세가 되어 죽었더라

위 본문은 창세기 9:18-19, 29의 번역이라기보다 절묘하게 엮은 편집구성격이 짙다.

창세기 14:1-3

『구약촬요』 때에시나왕과일나사왕과이란왕과렬방왕(할주)이ᄒᆞᆫ가지로소도마왕과고모라왕과앗마왕과셔편왕과쇼을왕(할주)을치니ᄉᆞ왕이오왕으로더부러시진곡에셔싸홈ᄒᆞᆫ지라

『개역개정』 당시에 시날(시나)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일나사) 왕 아리옥과 엘람(이란)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렬방) 왕 디달이 소돔(소도마) 왕 베라와 고모라(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앗마) 왕 시납과 스보임(셔편) 왕 세메벨과 곧 소알(쇼을) 왕과 싸우니라

『구약촬요』는 왕국과 왕이 함께 언급된 본문에서 왕의 이름을 삭제한다. 아래 『개역개정』과 비교하라. 대신 원문에 없는 'ᄉᆞ왕이 오왕으로 더불어'를 편집구로 삽입한다.

창세기 17:17

『구약촬요』 私自思惟我己期頤
스ᄉᆞ로ᄉᆡᆼ각ᄒᆞ되내가임의구십여셰오

『개역개정』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기이’(期頤)는 백 세를 가리키는 관용어다(<禮記 曲禮上>). 백 세가 되면 움직일 수 없어 턱[頤]으로 의사를 표현한다는 뜻이다. 번역에 참여한 한글 ‘선비’가 ‘기이’(期頤)를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요한은 그를 학자, 선비(scholar)라고 칭한 바 한문에 꽤 박식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기이지수(期頤之壽) 번역처럼 ‘이미 구십여 세’라고 말하지 않는다. 히브리어는 백세(מֵאָה שָׁנָה)다.

창세기 18:16
『구약촬요』 三人乃起望所道馬以行
삼인이니러나소도마ᄅᆞᆯ ᄇᆞ라보고힝하시니
『개역개정』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삼인’(三人)은 『개역개정』에서 보듯 해설로 덧붙인 표현이다.

창세기 22:7
『구약촬요』 以土岳謂父曰吾父歟
이ᄉᆞ악이아비의게고ᄒᆞ야ᄃᆞᆯᄋᆞ ᄃᆡ우리아바지여
『개역개정』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구약촬요』의 ‘우리 아바지여’는 명백한 한국식 호칭이다. 히브리어는 ‘내 아버지’(אָבִי)로 『개역개정』이 정확하다. 한문 또한 吾父歟, ‘나의 아버지’인데 굳이 ‘우리’라고 칭한 것이 눈에 띈다.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다.

창세기 24:27
『구약촬요』 我主亞巴羅咸所敬奉之主上主
우리쥬인아브라함의공경ᄒᆞᄂᆞᆫ쥬샹쥬여
『개역개정』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일인칭 단수 ‘나의 주’(אֲדֹנִי)가 복수 ‘우리 주인’으로 바뀌었다. 다음은 라반이 엘리에셀을 환대하는 장면에서도 엇비슷하게 옮겼다.

창세기 24:31
『구약촬요』 主賜福者請入我家
텬쥬끠복을닙은쟈ㅣ로다쳥컨ᄃᆡ우리집으로드러오라
『개역개정』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원문은 '들어오라'(בּוֹא)일 뿐 '우리 집'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집'은 번역 과정에 덧붙여진 것이며 '우리'는 명백히 한국적 관용어다.[48]

창세기 24:60
『구약촬요』 我等之妹願爾作億萬人之母
우리누의ᄂᆞᆫ원컨ᄃᆡ억만인의어미되고
『개역개정』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위에서 '우리 누이'는 한문 '我等'과 같이 히브리어 본문(אֲחֹתֵנוּ)과 일치한다.

창세기 29:17
『구약촬요』 利亞之目有疾羅結容貌美麗
리아에눈은병이잇고라결은얼골이아ᄅᆞᆷ다오니
『개역개정』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רַכּוֹת)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성경(2003)』),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지만"(『공동』)처럼 원문에 없는 '눈(eyes)'을 포함하여 주석 또는 해설을 곁들인 경우다.

다음 인용은 민영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서 본문의 발췌나 요약이 아니라 재구성이다.[49]

야고보의아ᄃᆞᆯ이십이형뎨ㅣ니그일홈을아ᄅᆡ긔록ᄒᆞ노니 쟝ᄌᆞᄂᆞᆫ류변이오 ᄎᆞᄌᆞᄂᆞᆫ시메온이요 삼ᄌᆞᄂᆞᆫ리위요 ᄉᆞᄌᆞᄂᆞᆫ유다오 오ᄌᆞᄂᆞᆫ셰부륜이요 륙ᄌᆞᄂᆞᆫ이ᄉᆞ갈이오 칠ᄌᆞᄂᆞᆫ단이오 팔ᄌᆞᄂᆞᆫ갓이오 구ᄌᆞᄂᆞᆫ아셜이오 십ᄌᆞᄂᆞᆫ납타리오 십일ᄌᆞᄂᆞᆫ요습이오 십이ᄌᆞᄂᆞᆫ변야민이라 (35:22-26)

야곱의 열두 아들을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며 원문의 '빌하의 아들들'과 '실바의 아들들'은 뺐다. 이어서 열두 지파의 연원을 소개하는 다음 구절은 번역자의 해설이다. "유더아ᄇᆡᆨ셩은다야고보의후예니흔희그죠샹의별호를 빌어이스라엘ᄇᆡᆨ셩이라닐ᄏᆞᆺ고십이형뎨로말매암아낫시니난호여열두파ㅣ되엿ᄂᆞ니라."

한편『구약촬요』번역 중 가장 충격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내용이다.『개역개정』이 보여준 저주 섞인 내용과 상당히 다르고 오히려 축복에 가깝다.

48)『개역개정』이 원문과 달리 '우리 아버지'로 옮긴 예도 보인다. 창세기 44:27을 보라.
49) 민영진, "최근에 발견된 희귀본 성경 <구약촬요>", 162.

이ᄉᆞ악이ᄀᆞᆯᄋᆞᄃᆡ너거ᄒᆞᆫ곳에가히하ᄂᆞᆯ에감로나림을엇고따히ᄒᆞᆼ샹살지고
아름다오리라너ㅣ쟝ᄎᆞᆺ칼노써ᄉᆡᆼ이ᄅᆞᆯ도모ᄒᆞ고네아오ᄅᆞᆯ셤기리니너ㅣ쟝셩
ᄒᆞ면가히그멍에ᄅᆞᆯ버셔나리라 (27:39-40)

야곱의 축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늘의 감로내림'과 '땅의 비옥한 모습'을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복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고요한 주교는 KJV와 라틴어 성서를 따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50] 특히 '기름과 이슬' 앞에 오는 전치사 מִן을 결핍보다 부분적인(partitive) 의미를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서는 실제 그의 거주지 세일 산에서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을 받아 풍족하게 살았다.

지금까지『구약촬요』가 보여준 번역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 진전된 연구를 기대하며 잠정적 결론을 내린다면『구약촬요』는 이미 제목이 암시한 대로 창세기의 완전한 번역이라기보다 중요 내용을 선택적으로 취하여 '전례적 교회'의 독서를 위한 간추린 번역이다.

5.3. 할주(割註)의 특징과 분석

『구약촬요』에는 놀랍게도 하이퍼텍스트에 해당하는 장치가 들어있다. 이른바 할주다. 간혹 분주(分註), 또는 협주(挾註)라고도 하며 본문에서 한 줄을 둘로 쪼개어 보조적인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앞서『조만민광』에서 보여준 방식대로『구약촬요』는 특정 구절이나 해당 낱말, 또는 기독교 교리 등을 할주에 담았다. 전체 35단락 중에 중복된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45회 이상 나온다. 할주와 관련하여 1910년『부표관쥬 신약젼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06년 발행된『신약젼셔』의 본문에 다양한 표식을 넣어 성서의 메시지와 연관성을 찾게 한 것이다.[51] 그러나 관주(串珠)는 성격이 살짝 다르다. '보석을 꿰다'는 한자어처럼 성서에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말씀의 인용 관계, 본문 비교, 연관 내용 등을 일러준다. 이와 같은 흐름은『신약젼셔 관쥬』(1912),『선한문관주신약전서』(1926),『선한문관주성경전서』(1926),『해설 관주 성경전서』(1997) 등이 잇는다. 놀랍게도『구약촬요』는 처음부터 일종의 주해를 할주(割註)로 제시하여 처음 성서를 접하는 조선의 독자

50) KJV Gen. 27:39, "And Isaac his father answered and said unto him, Behold, thy dwelling shall be the fatness of the earth, and of the dew of heaven from above"를 비교하라.

51) 예컨대 罪는 죄, 저울은 심판, 화살은 회개, 악수는 사죄, 십자가는 구원, 비둘기는 구원에 대한 믿음, 등불은 간증, 닻은 보호, 血은 성결, 왕관은 재림, 나뭇잎은 신유를 표시하는 부표로 활용한다. 성서의 내용에서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개념을 상징적인 기호로 새긴 것이다.

들에게 가독성을 높였다. 할주를 모두 열거하는 것은 상당한 분량이지만 일독하면 창세기의 맥락과 주요 기독교 개념과 사상을 알 수 있다.

> 칙곡은곳나물과곡식이라(1:11)
> 년일은곳히와날이라(1:14)
> 어츙은곳물에든기는즘승이라(1:20)
> 싱명수: 목숨을보존ᄒᆞ야길이살게ᄒᆞᄂᆞᆫ나무ㅣ라(2:9)
> 별션악수: 션악을분별ᄒᆞ야알게ᄒᆞᄂᆞᆫ나무ㅣ라(2:9)
> 희빅록본문을본즉남ᄌᆞᄂᆞᆫ이시ㅣ라ᄒᆞ고녀인은이식라ᄒᆞ니어음이거의ᄀᆞᆺ ᄒᆞ니라(2:23)
> 마귀가빅암의모샹을닙고녀인의게말ᄒᆞᄂᆞᆫ거시니라마귀ᄂᆞᆫ본ᄃᆡ일흠텬신 되며텬쥬의은총을닙더니이에ᄌᆞ랑ᄒᆞ며교만ᄒᆞᆫᄆᆞᄋᆞᆷ으로텬쥬와ᄀᆞᆺ치놉고 져ᄒᆞ야일분텬신을유인ᄒᆞ야거ᄂᆞ리고텬쥬의위엄을범람히거ᄉᆞ리매 텬쥬 ㅣ즉시뎌들을벌ᄒᆞ샤디옥에ᄂᆞ리치시니뎌희들이마귀되매사ᄅᆞᆷ을투긔ᄒᆞ 야범죄케ᄒᆞ기ᄅᆞᆯ힘써쇠ᄒᆞᄂᆞ니라(3:1)
> 녀인의후예ᄂᆞᆫ곳구셰쥬예수그리스도ㅣ시니라(3:15)
> 긔로빔: 텬신이라(3:24)[52]
> 아담으로부터노에ᄉᆡ지ᄃᆡ슈ᄅᆞᆯ헤ᄋᆞ린즉십ᄃᆡ되엇ᄂᆞᆫ지라셰상처음에ᄂᆞᆫ사 ᄅᆞᆷ의명이쟝히길어ᄃᆡ마다팔구ᄇᆡᆨ년식슈ᄅᆞᆯᄒᆞ엿시니그동안인류가번셩ᄒᆞ 니라(6:1)[53]
> 졍결ᄒᆞᆫ즘싱은곳졔ᄉᆞ에합당ᄒᆞᆫ즘싱이요불결ᄒᆞᆫ짐싱은졔ᄉᆞ에맛당치아닌 즘싱이라(7:2)
> 텬하만민: 노에ᄌᆞ손(11:9)
> 노에ᄌᆞ손의언어가혼잡ᄒᆞᆫ후에다텬하만방에흣어져ᄎᆞᄎᆞ아셰아구라파아 블리가오대리아아미리가오대쥬에퍼지고각각나라홀다셰웟ᄂᆞ니라(11:9)
> 타라ᄂᆞᆫ노에의구ᄃᆡ손이라(11:27)
> 이말ᄉᆞᆷ은다ᄅᆞᆷ이아니오텬쥬씌셔미리구셰쥬강싱ᄒᆞ심을허ᄒᆞ시ᄂᆞᆫ거시라 구셰쥬예수그리스도의인셩을본즉그디톄가아브람으로말ᄆᆡ암으니엇지 텬하만민이아브람을인ᄒᆞ야진복을엇지아니ᄒᆞ엿ᄂᆞᆫ고(12:3)
> 가나안짱은후일에유더아짜되엿ᄂᆞ니라(12:5)
> 아브람의ᄌᆞ손들이후일에가나안짜희셔유더아국을셰우고번셩ᄒᆞ다가나 죵에텬쥬씌득죄ᄒᆞ고구셰쥬ᄅᆞᆯᄃᆡ졉지아니ᄒᆞ기에즁ᄒᆞᆫ벌을밧고멸망ᄒᆞ엿 ᄂᆞᆫ지라구셰쥬예수그리스도씌셔아브람의후예되시매텬하만민즁에무릇 구셰쥬를알아밋고텬쥬셩교ᄅᆞᆯ밧든사ᄅᆞᆷ이유더아ᄇᆡᆨ셩을ᄃᆡ신ᄒᆞ야아브람 츰후예되엿시니이제교인이번셩ᄒᆞ야텬하에ᄀᆞ득ᄒᆞ니그수효가모래수와 ᄀᆞᆺ치헤ᄋᆞ릴수업ᄂᆞ니라(13:16).

---

52) 긔로빔, ᄉᆞ쟈, 그리고 야곱이 얍복 강에서 만난 '사ᄅᆞᆷ' 모두 '텬신'으로 표기하였다.
53) 할주는 대개 본문에 배열되었으나 위는 문단 제목에 들어있는 해설로 형식의 차이를 보인다.

이네나라히가나안짜동편에잇서샹거가거의이쳔리라(14:1)
이다숫나라히가나안짜헤잇서샹거가멀지안코아브람쳐소에잣가오니라(14:2)
곳가나안짱이라(15:7; 28:13)
아모리: 곳가나안짱에사는함의ᄌᆞ손이라(15:16)
쥬의ᄉᆞ쟈: 곳텬신이라(16:17; 21:17; 22:11; 28:12; 32:1,24)
이스마엘: 번역ᄒᆞ면곳텬쥬ㅣ굽어드ᄅᆞ시는ᄠᅳᆺ이라(16:15)
곳가나안짱동편이오이스마엘ᄌᆞ손을아라빅인이라(16:16)
아브라함: 번역ᄒᆞ면여러겨레의죠샹ᄠᅳᆺ이라(17:5)
사라: 번역ᄒᆞ면녀군이라(17:15)
삼인즁에ᄒᆞ나흔텬쥬ㅣ사ᄅᆞᆷ형샹을닙어나타내심이오둘사ᄅᆞᆷ은텬쥬ᄅᆞᆯ뫼시는텬신이니라(18:2)
이소는번역ᄒᆞ면털만흔ᄠᅳᆺ시라(25:25)
야고보는번역ᄒᆞ면형의명분을앗는ᄠᅳᆺ시라(25:26)
헷나라사ᄅᆞᆷ은가나안짜희원거인이니아브라함의ᄌᆞ손이가히뎌희게쟝가들지못ᄒᆞᄂᆞ니라(26:35)
동방: 곳카란짜히라(29:1)
본문을본즉야고보ㅣ안히둘을ᄒᆞᆫ겁에엇은ᄲᅮᆫ아니오기외에실파와필하두종을쳡으로두엇시니혹이무ᄅᆞ딕우리엇지야고보ᄀᆞᆺᄒᆞᆫ셩인을본받아쳡을두지못ᄒᆞ겟ᄂᆞ뇨답왈텬쥬씌셔처음인류ᄅᆞᆯ문ᄃᆞ실ᄯᅢ에일남일녀ᄅᆞᆯ합ᄒᆞ야짝을일우시고혼례ᄅᆞᆯ뎡ᄒᆞ셧거ᄂᆞᆯ슬프다아직률법을셔칙에긔록ᄒᆞᆫ것시업ᄉᆞ니빅셩이텬쥬의계명을쉬니져ᄇᆞ리고혹셩인이라도혼인ᄒᆞᄂᆞᆫ본의를거ᄉᆞ렷시니텬즁긔셔사ᄅᆞᆷ의약ᄒᆞᆷ을용셔ᄒᆞ샤쳡두는거슬엄히금치아니ᄒᆞ시고구셰쥬ᄅᆞᆯ명ᄒᆞ야보내샤우리로ᄒᆞ여곰계명을직희게ᄒᆞ셧시니엇지감히고교ᄯᅢ셩인의힝ᄒᆞᆷ을빙자ᄒᆞ야다시텬쥬의계명을거ᄉᆞ리겟ᄂᆞ뇨(31:18)
야복 하슈: 건너편은가나안짜히라(32:22)
ᄒᆞᆫ사ᄅᆞᆷ: 텬신이라(32:24)
벳드릂: 후에구셰쥬나실짜히라(35:19)
곳미뎐에사는이스마엘의ᄌᆞ손이라(37:25) ㅅ 미전(米田)은 미디안의 한자 표기
파로는에집도님군의일홈이라(37:36)
쥬졍: 슐맛흔신하라
션쟝: 찬물맛흔신하라(40:1)
야고보ㅣ이에열두아ᄃᆞᆯ을불너그후에맛날바일을각각예언ᄒᆞᆯ식넷ᄌᆡ아ᄃᆞᆯ유다ᄅᆞᆯᄀᆞ쟝칭찬ᄒᆞ야이스라엘겨레님군과구세쥬ㅣ그ᄌᆞ손으로ᄆᆡ딋암아나실줄을알게ᄒᆞ니라(49:12)

이상의 할주를 유형별로 나누면 인물(7명), 지명(11곳), 독특한 낱말(11개)에 대한 역사적 맥락, 기독교적 풀이다. 일찍이 선교지 성서 번역은 해설

을 곁들여 간행하는 예를 볼 수 있다. 『성경직히』(1892)가 같은 방식으로 번역되었고 『구약촬요』가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리 전달을 목표로 하는 선교 초기 교육용 성서 번역의 특징이랄 수 있다. 특히 야곱의 경우를 구실로 부부의 윤리를 어길 수 있는 점을 할주에서 길게 설명한 대목이 눈에 띈다(31:18). 또한 생소한 낱말 '긔로빔, 벳드름, 파로, 션쟝' 등에 대한 풀이와 기독교의 주요 사상 등을 짤막하게 제시한다.

6. 맺는말

서양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잠자던 한글을 일깨우니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과 활기가 일어났다. '한글'로 외피를 두른 것이지만 핵심은 성서의 번역과 복음의 정신으로 입국한 선교사들의 노고가 크고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심양에서 비롯된 '복된 소식'의 날갯짓이 『구약촬요』를 포함한 각종 한글 성서로 한반도 곳곳에 일렁거렸다. 히브리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과 라틴어 번역은 민중들의 언어로 전달되고 읽혔다. 성공회의 『조만민광』과 『구약촬요』는 그 대열을 따르면서도 엘리트 계층을 놓치지 않으려는 영리한 전략을 취한다. 곧 식자층을 위한 한문과 한글의 대역본 출간이 그것이다.

『구약촬요』와 『조만민광』은 일차적으로 대한성공회 고유의 자산이면서 동시에 한국기독교의 공동 유산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두 번역본이 본래 '전례적 교회'를 위한 독서 본문으로 기획된 점을 논구하였다. 역사적으로 해설을 곁들인 '타르굼'이나 기원후 2세기 복음서를 압축한 '디아테사론'과 비슷한 성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서 원문에 대한 정확하고 꼼꼼한 학술적 번역에 목표를 두지 않았다. 성서의 위대한 교훈을 '문자'에 가두지 않으려는 신학적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전례적 교회의 주일 미사에 봉독할 제1 독서와 복음서 일과의 준비가 우선이었다. 그 과정에 『구약촬요』가 차지한 한국교회 최초의 창세기 번역이라는 영예는 과외의 소득이다.

『구약촬요』는 『조만민광』에 견주면 평범한 명칭이다. 『조만민광 照萬民光』은 "만민을 빗최는 빗치라," 곧 이사야의 예언에서 따온 '이방의 빛'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사 42:6; 49:6; 눅 2:32; 행 13:47). 라틴어 *Lumen ad Gentium Revelationem*을 영문 제목으로 삼았다. 그런가 하면 『구약촬요』는 라틴어가 아니라 영어로 밋밋하게 *The Old Testament Selections*라고 붙였다.[54] 고요한 주교의 작명을 상상한다면 『구약촬요』를 '처음때의 말씀,' 곧

In Principio erat Verbum이라(요 1:1) 칭하지 않았을까? 즉『조만민광』은 구약에서 따오고,『구약촬요』는 신약에서 제목을 불러와 처음때의 말씀이 이 방에 빛을 비추는 놀라운 협력과 아름답고 정밀한 수사(rhetoric)를 떠올려 본다. 대한성공회의『구약촬요』와『조만민광』이 21세기 한반도와 온 인류에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빛이 되기를 빈다.

<주제어>(Keywords)
『구약촬요』,『조만민광』, 고요한, 성공회, 전례적 교회.
The Old Testament Selections, *Lumen ad Gentium Revelationem*, Lectionary, High Church, Hangul.

(투고 일자: 2026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6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26년 4월 9일)

54) C. J. Corfe, *Anglican Church in Corea*, 23.

<참고문헌>(References)

그리스도교와겨레문화연구회,『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91.
그리스도교와겨레문화연구회,『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김동진,『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서울: 참좋은친구, 2019.
김주성, “한국어 성서의 언어사회학적 의미와 전망”,「기독교사상」689 (2016. 5) 30-40.
김창주, “한글성서의 번역· 보급과 그 문화· 사회사적인 의미”,「신학사상」124 (2004), 219-254.
남우희,『<죠만민광照萬民光>: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 서울: 성공회출판사, 2021.
남우희,『<구약촬요舊約撮要>: 우리나라 최초의 창세기 번역』, 서울: 성공회출판사, 2024.
민영진,『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민영진, “성공회신학대학에서 발견된 <구약촬요>”,「성서한국」36:2 (1990), 15-19.
민영진, “최근에 발견된 희귀본 성경 <구약촬요>”,「기독교사상」385 (1991), 157-166.
聖公會,「조선성공회보」54 (1922).
이덕주, “성공회 발췌성서 <조만민광> 연구 – 제3의 성서로서의 기능과 의미”,『그리스도와 겨레문화』2, 서울: 기독교문사, 1987, 273-301.
이상혁, “표기법 어문정책의 변천과 그 역사적 의의 - 형태주의와 표음주의의 대립을 중심으로 -” (국제 한국어 응용언어학회 제6회 국제학술대회, 2015. 7. 21.-22.)
이응호, “최초의 한글성서「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국어교육』44/45 (1983), 432-435.
이재정,『한국성공회사개관』, 서울: 대한성공회출판부, 1980.
이환진, “알렉산더 피터스의 개역 구약 개정 작업”, 43 (2018), 7-39.
장창일, “한글 띄어쓰기 최초 창안자는 헐버트 아닌 윤치호”,「국민일보」, 2024. 10. 9.
정중호, “19세기 구약성경과 해석의 역사”,「신학사상」168 (2015), 7-41.
정중호,『한국 성경 300년: 번역과 해석의 역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22.
“최초로 한글 띄어쓰기, 존 로스 선교사로부터 시작되다”,「국립 한글박물관 소식지」(2017. 2.).
피득, “성경연구의 방법”,「신학세계」1917. 11.
최정도, “한국어 표기법의 성립 과정 이해하기”,「한국사전학」42 (2023), 166-195.
한영균, “종고성교회(宗古聖教會) 간행(刊行)의 국어사(國語史) 자료(資料)에 대하여”,「언어사실과 관점」32 (2013), 1-36.
Corfe, C. J., *Anglican Church in Corea: Being Documents, Original and Translated,*

Issued by Authority during the Episcopate of the First Bishop of the Church of England in Corea between 1889 and 1905, Seoul: The Seoul Press, Hodge & Co., 1905.

Corfe, C. J., “Bishop Correspondent Letters” I, London: Korean Mission of the Church of England, 1889.

Corfe, C. J., “Lumen ad Revelationem Gentium”, *The Morning Calm* 46 (1894), 50-51.

Corfe, C. J., “The Bishop’s Letter”, *The Morning Calm* 52 (1894), 145-148.

Corfe, C. J., “The Bishop’s Letter”, *The Morning Calm* 72 (1897), 33-41.

Faught, C. B., *The Oxford Movement: A Thematic Study of the Tractarians and Their Times*,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3.

Ross. J., *Corean Primer*,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7.

T.H.Y., “Commas or Spacing”, *The Korean Repository* 3 (1896), 39.

Trollope, M. N., *The Church in Corea*. London: Mowbray & Co., 1915.

Trollope, M. N., “The Island of Kang-hoa”, *The Morning Calm* 53 (1894), 172-175.

Vinton, C. C.,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XI:9 (1893).

<Abstract>

A Study on *The Old Testament Selections* as Lectionary for High Church

Chang Joo Kim
(Hanshin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historical context surrounding the emergence of The Old Testament Selections,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its translation, and traces its original intentions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In particular, it seeks to explain why the earliest Korean translation of Genesis took the form of selected excerpts rather than a complete rendering, and how Bishop Corfe's work was intertwined with the objectives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Korean Peninsula stood at the center of intense international rivalry among imperial powers. On the one hand, it was a site of turmoil, fear, and political upheaval; on the other, it constituted fertile ground for the burgeoning hopes of Christian mission in Korea. Within this contested landscape, The Old Testament Selections emerged as the first fruit of the Korean Church's engagement with the Old Testament.

As Western missionaries awakened the long-dormant potential of Hangul, new cultural and religious vitality began to spread across the peninsula. Although presented in the outward form of the Korean vernacular, these efforts were fundamentally driven by the translation of Scripture and the spirit of the gospel, carried by missionaries who entered the country in devoted service to their calling. The "good news" that first took flight in Shenyang, China, was disseminated throughout Korea in the form of various Korean-language biblical texts, including The Old Testament Selections. Just as the Hebrew Scriptures had earlier been transmitted through koine Greek and Latin translations adapted to the languages of the people, these Korean translations likewise sought accessibility and wide circulation among the broader population.

Within this broader movement, the Anglican publications Lumen ad Gentium Revelationem and The Old Testament Selections followed the tradition of vernacular transmission while simultaneously adopting a strategic orientation toward educated elites. This approach materialized in the publication of parallel

editions pairing Classical Chinese with Hangul, thereby addressing both the literati and emerging vernacular readership.

The Old Testament Selections and Lumen ad Gentium Revelationem thus constitute, in the first instance, distinctive assets of the Anglican Church of Korea, while also belonging to the shared heritage of Korean Christianity as a whole. Both translations were conceived as lectionary texts for a High Church tradition. In this respect, their character may be compared to the Targums, which historically supplemented Scripture with interpretive exposition, or to the Diatessaron, the second-century harmonized Gospel compilation. Their aim was not to provide a strictly philological or academic translation of the biblical originals, but rather to avoid confining Scripture to a purely literal sense while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the first reading in a liturgical setting. In this process, the recognition of The Old Testament Selections as the earliest Korean translation of Genesis stands as an unintended yet significant byproduct of this broader ecclesial endeavor.